

소 속	직 위	성 명
-----	-----	-----

1 교사

역사 교사로 체험중심의 융합적인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촉진자로 서의 역할을 충실히하여 역사 학습에 대한 동기를 촉진시켜 스스로 자율적인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적이 좋은 학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진로상담교육도 함께 진행하며 학습 외에 해당 학생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새로운 비전을 열어 맞춤형 학습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연극반 지도나 인문학 동아리 지도, 축제 기획반 운영, 영화 기획 제작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사공동체 활동과 독서스터디를 통한 인문학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결국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행복한 곳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일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2 예술가

요리하는 취미와 화초를 가꾸는 취미를 통해 화가가 아니라도 미학적 차원의 예술가처럼 일상을 꾸려갑니다. 아침 밥을 지어 아름답게 테이블을 세팅하고 음악 들으며 사진을 찍고, 다시 글을 엮어 타자와 공유함으로써 나름 예술가처럼 살아갑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하나의 온라인 전시공간이 되는 치환적 경험은 미래의 예술가들에게 있어 가상현실이 어떤 예술의 장으로 작용하게 될지, 또는 그림을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며 영화를 제작하는 로봇들의 기능을 테크니션과 아티스트 중 어떤 분류로 정의해야할지 등에 대한 인문학적 고민들을 안겨줍니다.

‘예술’과 ‘기술’의 경계가 더욱 모호해지는 현대와 미래사회에서 ‘예술가’가 되려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사고의 확장과 예술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장을 열어 주어야할지 일상 예술가로서, 생활 예술가로서의 고민도 깊습니다.

3 문화예술교육 연구가

예술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의 차이라면, ‘예술교육’이 예술의 실행과 감동에 더 큰 방점이 있다면, ‘문화예술교육’은 성찰과 비평적 사고와 같은 인문학적 사유에 더 큰 방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술교육이 개인적인 성향이 있다면, 문화예술교육은 공동체적 성향이 조금 더 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데는 개인적인 삶의 성취를 위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성장하고 변화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2005년에 대전 문화예술교육 연구회를 발족시킨 이후 <카메라로 읽고 생각하기> <음악으로 다시 생각하기> <행복한 책과 사유, 독서교육 다시 쓰기> <사진분야 문화예술교육 신규 개발> <문화예술교육을 이용한 야영교육>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대안교육 및 인성교육, 생활지도>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지속해온 이유는, 품격 있는 삶을 통해 스스로 배움을 터득한 사람의 격조 높은 삶의 향기를 알기 때문입니다.

4

정책가

교육도 예술도 한 사회의 시스템 안에서 구현되는 것들이기에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깨고 진보하지 않는다면 한 갓 꿈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은 단순히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합니다. 몸소 겪고 있는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돌파하지 않는다면, 교육은 단순한 습관처럼 관습적인 것이 되고 때가 되면 밥을 먹는 것처럼 기계적인 것이 됩니다. 예술도 마찬가지로 퇴색되고 맙니다. 교육이나 예술 등 정책 입안자들의 사고가 유연할수록 사회는 더욱 진일보합니다. 니체가 말했듯이 우리가 ‘위험한 삶’을 산다는 것은 없던 것을 창조하고 도전하며, 있던 것을 과감히 파괴해나가는 모험정신과 창조적 생산정신을 말합니다. 바로 이 정신이 예술가의 정신으로, 모든 시대를 먼저 앞서가는 사람들이 예술가들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더욱 교육과 예술활동을 비롯한 삶의 총체인 문화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유의미한 사회와 세상을 만드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 위해서라도 관심분야인 교육과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자문활동과 컨설팅 활동 및 모니터링 활동 등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며 실천합니다. 그래서 보물섬고등학교 학생들은 필수 과목으로 정책과 경영 기초는 꼭 공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연극지도를 위해 ‘공연예술학’ 석사 공부를 하며 정책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절감했습니다. 학생들을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총체적 삶을 경영하고 전략을 짜는 과정으로 절실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입니다.

5

스토리텔러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시작되었고, 5차 산업혁명 기반의 미래사회에서는 예술과 콘텐츠의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음악, 미술, 문학, 연극, 무용 등 예술의 기반은 모두 사람들의 삶에서 부터 나오는 스토리이기에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삶에서 이야기를 일궈내고 만들어내고 감동을 나뉘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를 노래로 그림으로 연기와 춤으로 풀어내는 것 또한 중요한 소통의 언어들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5차 산업시대는 이미 열려있습니다. 콘텐츠와 데이터가 산업 트렌드인 시대에 이렇듯 다양한 언어로 타자와 소통을 시도하며 공감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아름다운 언어를 쓰고, 아름다운 글을 남기는 일을 즐겨하는 나는 스토리텔러입니다.

6

라이프 스타일 리스트

라이프 스타일, 그의 삶의 양식이 어떠한가는 그 사람의 인성까지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스스로 자신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삶의 양식을 만들어 살아가는 것, 다른 이와 다른 삶의 양식에 설령 손가락질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꺼이 웃으며 당당한 자존감으로 웃으며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독립적인 개체를 성장시키는 것, 이것이 저의 교육관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실험하고 제안하며 더욱 격조 높은 삶을 추구해나가는 것은 내 삶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두간모옥일지라도 적게 잘 차려서 격식 있게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이 모든 의식주 자체가 교육의 코드가 됩니다. 나의 일상이 그냥 그대로 교육이 되는 것, 그래서 예부터 가정교육의 중요성은 누누이 강조되어 왔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7

기획자

공연예술을 공부하면서 다양한 전시와 축제, 파티를 기획해왔습니다. 크게는 3년 동안 금산인삼축제 무대감독과 프로그램 컨설팅을 자원봉사로 참가하여 금산인삼축제가 최우수 축제로 발돋움 하는데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산 양지리 대보름 축제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컨설팅, 상상마당 논산 문화예술학교 컨설팅 및 프로그램 디자인, 학교축제, 다양한 파티, 서예 및 사진 작품 전시 기획, 연극공연, 교육프로그램 기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획자 및 아트디렉터로 활동했습니다. 기획자로서의 나의 경험들은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배움이 필요한지를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합니다. 기획자는 더 조직적이어야 하고 더 치밀해야하며 디테일의 힘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더 많은 독서와 리서치 및 정보수집이 우선되어야 좋은 문화예술 기획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교장이란 본분도 교육 디자이너와 교육기획자로 더 좋은 교육의 제안자임을 압니다.

8

모험을 즐기는 혁신가

삶을 위험하게 산다는 것은 곧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파격의 삶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파격없이 예술과 문화를 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알을 깨야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문턱을 서슴없이 넘어서야합니다. 현대 철학자들뢰즈의 주장만이 아니라, 들뢰즈의 주장 이전에 붓다도 예수도 이미 경계 없는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답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는 차별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면 우린 더 용기를 내어 더 다양한 색깔의 삶에 도전하게 됩니다. 안주하는 삶은 결코 알을 깰 수 없고, 예술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생각과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학교의 비전과 발전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이란 정형화된 하나의 상식의 틀에 갇힌다면, 결국 팔리지도 않는 그림과 불리지도 않는 노래와 관객 없는 연극과 무용으로 학생들은 낙담하여 자신을 실패자로 규정할지도 모릅니다. 자존감이 약하고 의존적이며 독립성이 약한 예술가들의 특성은 많은 예술가들을 비극적인 삶을 살다가 불행한 인간으로 극화시키기에 충분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틀을 깨야합니다. 새로움에 도전해야합니다. 현대 예술의 특성! 과감히 깨고 상식을 부수고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이게 하는 것이야말로 예술이라 불리는 시대! 나는 모험을 즐기는 혁신가입니다.

9

생활지도의 달인

대덕전자기계고등학교에서 생활안전부장 업무를 수행하며 다양한 학생 문제 사례를 접하다 보니 생활지도의 달인이 되어있었습니다. 2011년에 학업중단 학생이 170여명 이었던 것을, 문화예술교육을 이용한 꾸준한 인성교육과 대안교실 운영, 생활지도 상담 등으로 2014년엔 단 50명으로 학업중단률을 축소시켰고, 2015년엔 10명 이하의 학생들만이 탈락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키고 늘 깨어 평화롭고 자유로운 자가 되기 위해 새벽마다 명상을 이용하는데 생활지도와 교과지도에서 명상을 접목할 때 큰 효과를 확인합니다.